



Deloitte Newsletter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법인 대표들 "기업 재무제표 대리작성 거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 4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대표자들이 외부감사를 맡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대리해 작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법인 대표들은 지난 11월 14일 모임을 갖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했습니다. 대표들은 재무제표 대리 작성은 물론,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등도 대신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회계법인들, 상장하는 제일모직·삼성 SDS 외부감사에 눈독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공개(IPO)가 진행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의 외부감사인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상장안이 완료되면 내년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들도 경쟁을 자제하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려는 주식회사는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일모직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지정 감사인으로도 선정됐기 때문에 삼일·삼정·한영 등 다른 회계법인의 수임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 SDS 역시 삼일·안진·한영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회계법인이 수임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5년 외부감사 수임 경쟁...LG 전자·우리銀·SKT 최대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들의 2015년 외부감사 수임을 위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LG 전자를 비롯해 우리은행, SK 텔레콤 등이 내년 외부감사 수임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며, LG 전자·LG 이노텍·LG 하우스 등 LG 그룹 계열사, 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외부감사 계약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이 외에 우리은행, SK 텔레콤, 롯데쇼핑, 현대상선, KT&G, OCI, 한진해운, 아모레퍼시픽, 현대증권 등의 계약도 끝나게 되어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대형 기업이 많지 않아, 4대 회계법인들은 대체로 기존 고객을 지키는 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부채비율·이자비용 높은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됩니다. 또한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과 배임 사실을 많이 공시한 기업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입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원...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전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중소기업청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월드클래스 300' 지원책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월드클래스 기업의 지식재산(IP), 시장확대, 인력확보 등 6개 지원책을 새로 추진되며, 우선 IP 연계지원을 통해 월드클래스 R&D 사업을 원천·핵심특허 창출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 월드클래스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인력확보 방안, 해외 현지법인 금융지원 보증료 절감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우수 3대 민간 컨설팅 법인을 통한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월드클래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삼일,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 국내 민간 컨설팅 3개사와 잡코리아 등 신규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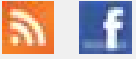
살아남는 게 목표...기업 5곳중 1곳 "계열사 팔거나 합칠 것"

대기업 및 우리 법인을 포함한 IB가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계 빅딜 긴급진단으로써 '계열사 매각, 합병에 의한 기업 구조 조정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업의 90%가 매각 상대로 동종기업을 꼽았으며, 'IB가 바라본 내년 M&A 주요 인수 후보군'에 대한 결과로 IB 관계자들은 대기업집단이 내년 M&A 시장의 주된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 설문결과(복수응답) 응답자 32곳 중 11곳은 내년 M&A 시장 주요 인수 후보군으로 대기업집단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부실감사 소송' 가액 655억 원... 회계법인 '리스크 관리'에 긴장

투자자들이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최근 부실감사와 투자손해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회계법인들은 리스크 전담팀을 강화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던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예전에는 감사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사후적으로 감사절차를 검토했다면, 지금은 중간에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감사리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원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원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